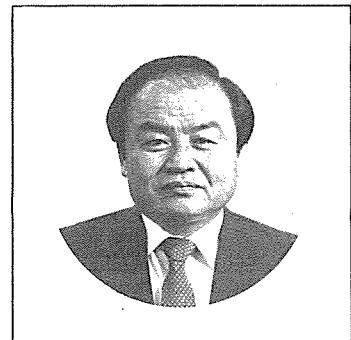


起亞 중앙기술연구소

“괄목할

自動車기계공업기술 축적”

다양한 신기술개발 및 특장차생산으로 두각



鄭 南 鶴 소장

起亞는 지난 83년 5월 뉴욕에서 열린『제 7회 국제 신기술 및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기술개발분야 최고의 영예인 “그랑프리”를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기술을 공인받는 계기를 마련한바 있다. 또 국내에서는 제 5회 발명장려대회에서 “자동차역진제어장치”가 최우수발명 대상을, 제 9회 전국 신기술 및

초창기인 1968년에 설립한 사업내직업훈련소는 우수한 고급기능인력의 양성과 고용증대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를 목표로 1800명의 기능인력을 산업현장에 배출했고, 총 6개공과에서 매년 160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그동안 국내 및 국제기능올림픽등에서 금메달 12개를 비롯 17개의 각종

『세계의 起亞』로 내실다져

발명품경진대회에서 “자동차제동유로조절장치”가 신기술발명 대상을, 정밀도경진대회에서 기계공업의 최고영예인 “정밀공업진흥의 탑”을 83년 5월부터 85년 2월까지 연속3회에 걸쳐 수상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起亞의 높은 기술수준을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메달을 획득하는 개가를 올렸다.

起亞는 이처럼 착실히 다져온 기술개발과 견실한 경영으로 종합자동차산업과 기계공업의 국가기간업체로써 손색없는 면모로 성장한 것이다.

起亞의 성장과정을 보면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전거생산에 주력하여 오다가 60

년대초부터 자동차생산으로 전환하여 오토바이, 3륜화물차 생산에 착수, 차동차 산업체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70년대에 들어와서 4륜화물차를 중점 생산함과 동시에 국내 최초로 가소린엔진을 생산했으며, 나아가 브리사·뿌조·피아트 승용차, 공작기계, 대형트럭, 고속버스, 디젤엔진등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80년대에 와서 봉고 1톤트럭생산을 시작으로 봉고시리즈생산에 이어 농촌형다목적트럭, 복사, 타이탄, 제레스, 사료운반차, 덤프트럭, 오가크레인, 렉카, 압착식 진개차, 분뇨수거차 등 특장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起亞는 이제 명실공히 종합자동차생산업체로서 체제를 구축하여 해외지점이 8개국에 나가 있고, 생산품도 세계 각지의 51개국에 수출하고 있는『세계의 기아』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起亞가 자동차산업의 후발국으로서의 불리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동차생산대열에서 당당히 한몫을 하게된데에는 그간 기술개발과 축적에 전사적역량을 집중

시켜온 결과라는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起亞는 「세계의 기아」로서 내실을 다지는 한편으로 더욱 기업의 번창을 위해서는 오직 신기술개발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명제아래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에다가 지난 81년 10월 중앙기술연구소(소장·鄭南鶴)를 설

다 Research분야의 육성, 순수분야, 엔진분야, 전자기술분야, 환경기술, Power Train 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간의 주요 기술개발실적을 보면 자동차역진제어장치(자동제동유로장치), Turbocharged 디젤엔진, 트랜지스터식 차량경보기, 농촌형 다목적트럭등

측적시스템, 철강재료분석을 위한 Vacuum Quanto Recorder, 금속재료연구를 위한 X-Ray Tester, Body 연구를 위한 C-clay Model측정시스템, 엔진성능분석을 위한 엔진 Dynamometer, 재료연구를 위한 Automatic Absorption Spectro Photometer등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起亞중央연구소는 지금까지 기아산업의 생산차종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연구를 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전 기아그룹사를 통합하는 종합연구소로 발전시킬계획아래 독자운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제 2 연구소, 해외연구소를 설립하여 규모를 확장함은 물론 국제수준의 연구소로 발전서킬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신기술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립, 84년 10월에 7천평의 대지에 5천평 연구동 3천평, 실험동 2천평)의 연구소를 신축하고 기술개발의 산실로의 체제를 구축했다.

국내외 연구인력을 보면 박사(1), 석사(50), 학사(290) 등 총 700명의 연구관련 인력이 개발계획실·사시연구부·바디연구부·엔진연구부·엔진실험부·실험연구부·특수연구부·기술관리부등 1실 7부 체제를 갖추고 분야별로 기술혁신개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각 연구분야는 독자적이면서도 상호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직제는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연구원의 직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민간연구소로서는 선발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평이다.

이 연구소의 운영방침은 효율적인 운영체제화립, 종합목표 기능관리부여, 업무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두고, 연구분야 육성으로는 Development 분야보

“최신시설 갖추고 세계수준연구소의 꿈키워”

을 개발하는 한편 S-엔진의 가변기통화에 따른 진동특성연구, 자동차프레임 응력해석연구 등을 통해 종합자동차산업 및 선진기계공업화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주요시설로는 자동설계 및 연구를 위한 CAD시스템, 각종 기술자료 및 도면관리를 위한 마이크로필름시스템, 저공해 연구를 위한 배기ガス

起亞중앙기술연구소전경

